

광주, 수소에너지대회 유치 경쟁

광주시가 2014년 세계수소에너지대회 유치에도 도전한다.

광주시와 광주관광컨벤션뷰로는 3월31일 열린 한국 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이사회에서 광주시가 2014년 열릴 제20회 세계수소에너지대회(WHEC)의 국내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4월1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소에너지학회와 함께 6월 제17회 대회가 열리는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즈번에서 2014년 대회 유치를 놓고 각국의 후보도시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수소에너지대회는 수소에너지 및 신에너지와 관련된 세계 최대의 학술대회로 1976년부터 2년마다 개최돼 왔으며, 한국은 1996년 부산시가 유치에 도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대회에는 참가하는 외국 학자만 1500명 이상이며, 2004년 일본 Yokohama에서 열린 제15회 대회에는 57개국에서 2000여명이 찾아오기도 했다.

광주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4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에서 제20회 대회가 열린다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인지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8/04/02>